제6장. 명청대 유학 연구

선삼병

1. 머리말

본 내용은 2014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에서 <중국: 명·청대 유학>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한국연구재단에 정식으로 수록된 논문(KCI)을 기준으로 삼았다. 선별 논문의 발표 시기는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의 기간이다. 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논문집을 연구재단 분류 방식에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철학전문 등재지(후보지) 25개, 유교학 4개, 기타인문학 1개, 중국어와문학 1개, 역사학 19개이다.

이상의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 <중국: 명·청대 유학> 시기에 해당되는 논문은 총 18편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논문에 대한 일목요연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두가지 분류 방식에 따라 나누어보았다. 첫째는 인물별 분류이고 둘째는 주제별 분류이다. 인물별 분류에서는 각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을 시대순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주제별 분류에서는 첫째 철학사적인 논문, 둘째는 철학적인 논문으로 분류하고 다시 각 분류 안에서 주제별로 구분하였다.

2. 인물별 분류

1) 왕양명 관련 논문(10편)

번				
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장윤수	氣學과 心學의 횡단적 소통구조에 관한 연구 : 張橫渠와 王陽明의 이론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제130집	대한철학회
2	박종식(외)	王陽明과 Kant의 도덕철학 비교 연구	<철학논총> 제76집	새한철학회
3	김세서리아	왕양명 철학에서의 감정 이해와 그 윤리적 함의	<유학연구> 제30집	유학연구소
4	김방룡	보조지눌(普照知訥)의 공적영지(空寂靈知)와 왕양명(王陽明)의 양지(良知)의 비교연구	<동서철학연 구> 제71권	동서철학회
5	서강휘	朱熹와 王陽明의 本領工夫論	<양명학> 제37집	양명학회
6	박길수	왕양명 철학에서 도덕 감정과 즐거움의 문제 : 왕양명 심체(心體) 사상에 대한 도덕 심리학적	<양명학> 제38집	양명학회
7	정갑임	왕양명의 '만물일체'의 관점에서 '가족' 돌아보기	<양명학> 제38집	양명학회
8	정은해	양명의 수양론의 명상론적 의미	<양명학> 제37집	양명학회
9	임홍태	陽明의 『中庸』觀 研究	<동양고전연 구> 제54집	동양고전학 회
10	선병삼	사구교(四句教), 왕수인 최후의 공안(公案) 연구를 위한 기본 이해 3가지	<공자학> 제26호	공자학회

전체 18편의 논문 중에서 왕양명에 관한 논문이 10편으로 전체 편수의 50%를 넘는 수치이다. 이는 명·청대 중국유학에서 왕양명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중심에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10편이라는 논문 편수는 1년이라는 기간을 상정했을 때 결코 많은 편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각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다양한 방면으로 왕양명 철학사상을 조명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왕양명 철학사상에 대한 축척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연구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인 일이다.

우선 비교철학적 논문들이 눈에 띄는데 ②는 칸트와 양명의 도덕철학을 비교하고 있고 ④는 보조지눌의 공적영지와 양명의 양지를 비교하고 있다. 물론 왕양명 철학 사상의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한 논문들도 여전히 보이는데 ⑤, ⑨, ⑩ 논문이 바로 이것이다. 한편 현재 한국 동양철학계의 주류 논의들을 가지고 양명학을 검토한 논문들이 상당수 보인다. ③, ⑥은 감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⑧은 심리학적 명상론을 다루고 있으며, ⑦은 '가족세우기'라는 심리치료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①은명대 심학에서 청대 기학으로라는 통상적인 명·청철학사 시대 구분법에 도전하고있다.

2) 허경암,주해문(1편)

번 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이상훈	허경암(許敬菴)과 주해문(周海門)의 구체구해론변(九諦九解論辯)고 찰	<유학연구> 제30집	유학연구소

익히 잘 알려진 것처럼 허경암과 주해문은 왕양명의 재전제자들로서 사구교 논쟁을 다루는데 결코 빠트릴 수 없는 양명후학자들이다. 이들의 논쟁은 양명이 말년에 선포한 사구교 교법에 대한 전서산과 왕기 논쟁을 잇고 있으며, 사구교 교법에 대해 당시 지식인들이 가졌던 문제의식의 내면을 주밀하게 살피는데 좋은 안내자 역할을 해준다. 본 논문은 허경암의 구체와 주해문의 구해 논변을 대비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논쟁의 핵심과 논쟁의 전개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3) 유종주(2편)

번 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이용주	유종주劉宗周와 다산의 "심성心性"론 비교	<다산학> 제25호	다산학술문 화재단
2	신현승	유종주(劉宗周)의 신유학(新儒學) 수용 양상에 관한 고찰 -중국 명대 유학사의 한 단면-	<동서철학 연구> 제71권	동서철학회

①은 명말청조 심설과 다산 심설의 내적 연관성이라는 구도 하에서 유종주의 심설과 다산의 심설을 비교한 논문이다. 이를 위하여 유종주 심설의 기일원론적 경향과 주자학의 심성이원론 비판을 밝히고 이어서 다산의 탈형이상학적 특성과 정주학의 심통성정설 비판을 논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以情說性'이라는 구도에서 상호간의 공통점을 밝혀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②는 유종주 철학의 주자학적 특성과 양명학적 특성에 대한 해명 작업으로, 유종주가 양명학에 대해 비판적 수용을 거쳤음을 밝히고 이를 통하여 이른바 양명좌파에 대한 비판을 진행했음을 밝힌다.이를 통하여 유종주 철학을 단순히 양명학이라고 규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논하고 있다.

4) 왕부지(3편)

번 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조우진	소옹(邵雍)의 선천역학(先天易學)에 대한 王夫之의 비판	<공자학> 27호	공자학회
2	김재경	희로애락(喜怒哀樂)의 미발(未發)에 대한 왕부지(王夫之)의 견해	<동양철학연구 > 제79집	동양철학연 구회
3	안재호	도덕심은 인지능력을 포함하는가?- "仁義之心(인의지심)"과 "思(사)"에 대한 왕부지의 해석	<동양철학연구 > 제80집	동양철학연 구회

①은 왕부지의 소옹 선천역학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선천역의 본래적인 의미를 탐구하며 이를 통하여 왕부지 역학 사상의 기본 골격을 소개하고 있다. ②는 왕부지의 미발지중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하여 인의예지와 희노애락의 정감이 대응되는 조합들을 작성하여 선한 정감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고 있다. ③은 왕부지의 인의지심과 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위 도덕심과 인지심의 대립이라는 기존의 연구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

5) 대진(1편)

번 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정빈나	18세기 동아시아와 "근대성"이라는 프리즘에 관하여 -대진의 "리(理)" 해석과 "개별자" 개념의 부각에 관한 연구	<철학논집> 제36집	서강대 철학연구소

대진 철학을 논하는 기본적인 접근법은 근대의 기획자로서의 대진 철학이다. 이때 근대라는 개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 개인(개별자)의 출 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 관점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6) 기타(1편)

번 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진성수	17-18세기 중국 유교지식인의 기철학(氣哲學) 연구	<유학연구> 제30집	유학연구소

본 논문은 유종주·황종희·왕부지·대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청대 기철학은 송대 장재의 기학에서 연원했으며, 명대 유종주를 거쳐 청대 황종희, 왕부지, 대진 등을 거치며 기일원론으로 정립됨을 밝히고 있다.

3. 주제별 분류

18편의 논문을 주제별로 분류해 본다면, 먼저 심학과 기학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앞서 인물별 분류에서 드러나듯, 명대 양명학과 청대(명말청초)의 기철학을 대표하는 학자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철학사와 철학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분류하자면 특정 철학자의 사상 또는 그 철학의 의미 맥락을 밝히는데 치중한 이른바 철학사적인 논문과 현대철학사조(심리철학, 도덕심리학, 심리치료등)를 통한 새로운 재해석을 시도한 철학적 논문들로 나눌 수 있다.

1) 철학사적인 주요 논문

번 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임홍태	陽明의 『中庸』觀 研究	<동양고전연 구> 제54집	동양고전학 회
2	서강휘	朱熹와 王陽明의 本領工夫論	<양명학> 37집	양명학회
3	선병삼	사구교(四句敎), 왕수인 최후의 공안(公案) 연구를 위한 기본 이해 3가지	<공자학> 제26호	공자학회
4	이상훈	허경암(許敬菴)과 주해문(周海門)의 구체구해론변(九諦九解論辯)고찰	<유학연구> 제30집	유학연구소
5	신현승	유종주(劉宗周)의 신유학(新儒學) 수용 양상에 관한 고찰 -중국 명대 유학사의 한 단면-	<동서철학연 구> 제71권	동서철학회

장윤수의 <氣學과 心學의 횡단적 소통구조에 관한 연구 : 張橫渠와 王陽明의 이론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제130집) 논문은 명대 심학과 청대 기학이라는 전통적인 구도를 새롭게 재해석하고자 한 논문으로 논지 전달의 성공 여부를 떠나 철학사적 논문의 좋은 유형에 속하는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 철학적인 주요 논문

번 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세서리아	왕양명 철학에서의 감정 이해와 그 윤리적 함의	<유학연구> 제30집	유학연구소
2	박길수	왕양명 철학에서 도덕 감정과 즐거움의 문제 : 왕양명 심체(心體) 사상에 대한 도덕 심리학적 고찰	<양명학> 제38집	양명학회
3	정은해	양명의 수양론의 명상론적 의미	<양명학> 제37집	양명학회
4	정갑임	왕양명의 '만물일체'의 관점에서 '가족' 돌아보기	<양명학> 제38집	양명학회
5	김재경	희로애락(喜怒哀樂)의 미발(未發)에 대한 왕부지(王夫之)의 견해	<동양철학연 구> 제79집	동양철학연 구회

철학사적 논문과 철학적 논문의 비율을 비교해 본다면 2000년대 이후 한국 동양 철학계의 특징으로 부각되는 이른바 철학적 논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가 여기서도 확인된다. 철학적 논문은 먼저 한국 동양철학계에서 근자에 자주 논의되 는 감정에 관한 연구와 직간접의 관계를 맺고 있는 논문이 상당수 보인다. 가령 ①, ②와 같이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논문 외에도 ⑤의 논문이 있다.

철학적 논문은 주로 서양철학의 관점과 방법론을 기본 틀로 삼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동양철학에 대한 창조적 독해 수준을 넘어 오독으로 전략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소한 18편 내의 철학적 논문들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결과물들이 많다.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장윤수는 자신의 논문(<氣學과 心學의 횡단적 소통구조에 관한 연구 : 張橫渠와 王陽明의 이론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제130집)에서 명대 심학과 청대 기학이라는 철학사(사상사) 서술의 기본 구도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요청한다. 그는 본 논문에서 종래 '병렬적' 또는 '대립적'으로 이해되던 張橫渠의 氣學과 王陽明의 心學을 상호 소통의 차원에서 해명하고자 했다.

바로 "장횡거의 太虛論은 불교의 寂滅論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측면도 있다. 그러므로 心學을 氣學으로 이해하는 작업, 즉 良知의 본체를 太虛로 이해하게 되면 그동안 陽明 心學이 程朱學으로부터 줄기차게 받아야 했던 '불교적 異端論'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있다. 이 연구는 횡거 철학의 전통을 程朱理 學의 시각에서 뿐만 아니라 오히려 陸王心學의 전통에서 읽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 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 필자는 여기에서 성리학의 발전적 계승으로 陽明 心學을 해석하였고, 또한 陽明 心學의 이론 선구로 橫渠 氣學을 이해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도는 탁월한 주제 의식으로 충분히 긍정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이 주장을 논증하기 위하여 2가지 노선을 선택하는데, 먼저 본체론의 측면에서 太虛와 良知의 개념을 직접 비교함으로써 氣學과 心學의 존재론적 구조가 상통함을 설명한다. 그리고 공부론의 측면에서 大心과 致良知 개념을 비교하면서 氣學과 心學의 공부론이 서로 소통하고 있음을 논증한다. 2가지 논증 노선의선택 또한 탁월하다.

그리고 장횡거와 왕양명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는 자신만의 창견이 아니고 이미 탁월한 연구자들의 계시가 있었다고 하면서 먼저는 모종삼을 예로 들고 아울러 일 본 양명학의 전개과정을 제시한다. 바로 일본 양명학사에서 가장 큰 특징은 '太虚 論'이 사상사의 주류를 이룬다는 것이며 나카에 토쥬에서 시작하여 쿠마자와 반잔, 미와 싯사이, 사토 잇사이로 이어지는 이러한 흐름은 오시오 츄사이에 이르러 '歸太 虚'의 사상으로 종합된다고 밝히고 있다.

준비는 완료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멋들어지게 본인이 선택한 2가지 노선을 통해서 독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수긍하게 하는 일만 남았다.

그런데 시작부터 좋지 못하다. 3장 1절의 '氣學과 心學의 형성배경 및 소통가능성 모색'에서 "氣學과 心學은 우선 외형상 氣와 心 개념 자체가 강하게 대비된다. 현대 철학자들에 의해 흔히 氣는 물질적인 것으로, 그리고 心은 정신적인 것으로 읽힐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떤 중국철학에서도 서양철학에서처럼 물질과 정신은 서로 상 반되거나 대립되는 것으로 엄격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氣와 心을 물질과 정신적인 개념으로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서두를 전개한다. 서 양은 심과 기를 정신과 물질이라는 이원적인 것으로 봤지만 동양은 심과 기를 이원 적으로 보지 않았다. 주자도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기학과 심학은 소 통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은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애초에 본 논문이 상정한 중국사상사에서 이학→심학→기학의 구도를 타파하고자 한다면, 주자학의 性體와 양명학의 心體의 차이를 밝히면서, 주자학의 이기이원적 경향성과 대별되게 양명학의 이기일원적 경향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학과 심학의 소통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방식을 취하지 못한 것이 다소 아쉽다.

2절의 '소통구조(1): 太虛와 良知의 본체론'에서 김윤수는 "그(장회거)가 주장하는 太虛는 우주론에서는 客形의 氣가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응결 되지 않는 흩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지만, 심성론에서는 천부적인 도덕심을 회복한 만물 공동의心으로서 곧 天地之性을 의미한다."라고 하고 "양명은 결국 良知가 道이고 天理이고太虛라고 보았다. 그러한 면에서 횡거의 본체론과 양명의 본체론은 기본적인 맥을 같이 하게 된다."라고 하여 장횡거의 태허와 왕양명의 양지의 상관성을 논한다. 여기까지는 훌륭한 전개를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다시 "太虛는 태허-기-만물로 이어지는 만물의 존재론적 운동의 궁극자로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良知는 앞서 보았듯이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고, 배우지 않고서도 할 수 있고 생각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능력 즉 천부적 도덕관념을 의미한다. 바로 여기에서 무어가 '자연주의적 오류'(naturalistic fallacy)라고 명명한 현대윤리학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고는 서둘러 동양사유 전통은 가치와사실의 대립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태허와 양지는 자연주의적 오류에 저촉되지 않고 상관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해명은 본 논문의 논지를 흐리는 사족과 같은 인상을 준다. 태허와 양지가 대응하는 것에 대한 객관사실적 타당성을 해명하는 데에 본 논문의 포인트를 뒤서는 안 된다. 애초에 장재 기학과 양명 심학의 계통성을 밝히는 데에 초점이 있는 이상 이점을 집중적으로 밝혀야 한다.

3절의 '소통구조(2): 大心과 致良知의 공부론'에서 "장횡거 철학의 탁월한 해석자인 王夫之는 횡거의 정몽을 주해하면서 性과 心을 정의하여 '性은 天道이고 心은人道이다.'61)라고 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횡거에 있어서 大心의 공부론은 결국 人道인 '心을 극진히 함'[大心]으로써 天道인 性을 체득하게 되는 과정이다."라고설명하고 "양명이 말하는 致良知란 곧 良知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또한天地의 도덕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횡거에게 있어서 大心을 통해 회복되는 본래심과 또한 양명에게 있어서 致良知를 통해 회복되는 본래심은 모두 그 존재 근거를太虛之心(天地之心)에 두고 있다."라고 평가한다.

여기서 문제는 치양지가 곧 양지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양지는 본체이고 치양지는 공부이니 치양지는 양지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해석은 극히 자연스럽게들린다. 그러나 실상은 양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결여한 해석이다. 치양지가 양지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자가 표방한, 공부를 통하여 성체를 밝힌다는 공부론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다. 양명학 공부론의 핵심은 양지가 치양지를 견인한다는 점에 있다. 이것이 성체와 다른 심체를 표방한 양명학의의리 맥락이다. 만약 장재의 대심이 이와 같은 의미에만 국한된다면 양명이 제창한치양지와는 반드시 일치한다고 하기가 어렵게 된다.

기철학에 대한 논의가 문제가 된 이상, 한국 학계의 청대 기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도식이 무엇인지 궁금한데 진성수의 다음 논문(<17-18세기 중국 유교지식인의 기철학(氣哲學) 연구>, 유학연구 제30집)은 전형적인 이해 방식을 보여준다. 바로 "특히 명말 청초시기 학문적 반성은 內聖을 목표로 심성수양위주의 理學과 心學의 한계를 넘어 外王의 문제에 주목하여 마침내 제도개혁을 추구하였다. 이러한점에서 당시 유교지식인들이 修己에만 몰두하는 老·佛을 비판했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따라서 청대학술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이 바로 氣哲學이었다"라는표현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애초에 본 논문이 주목한 대목은 "왕부지와 대진에 이르러 완성된 '중국 氣哲學이 明 중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劉宗周·黃宗羲·王夫之·戴震 등을 중

심으로 살펴보면서 淸代 氣哲學은 宋代 張載의 氣學에서 연원했으며, 明代 劉宗周를 거쳐 淸代 黃宗羲, 王夫之, 戴震 등을 거치며 氣一元論으로 정립됨을 밝히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기존의 관점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내용 서술 또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기존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면 모를까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면 굳이 논할 것들이 없다.

다만 진성수는 본 논문을 통하여 "그 동안의 대다수 연구에서는 명·청대 학술에 대해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고증학에 치우쳤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철학사상 내부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았다"라고 하여 본 논문의 특색을 글의 말미에서 정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본론에서 읽어내기는 어렵지만 그 문제의식은 분명 철학사 서술에서 분명하게 해명될 필요가 있는 주제임은 틀림없다.

아울러 청대 기학에 대하여 진성수는 3가지로 그 특징을 개괄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학계의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를 긍정하든 부정하든 말이다. "宋明理學에 대해 비판하며 등장한 17-18세기 중국 유교지식 인의 氣哲學 은 크게 3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주의 궁극적 근원을 一氣로 규정하고, 움직이는 우주 본체 개념을 완성했다. 즉, 實有와 生動, 生生과 氣 化 등으로 우주의 생성과 변화를 설명했다. 이로 써 정주학의 움직임이 없는 고요 한 우주본체는 매일매일 생동하는 우주본체로 전환됨으로써 현실의 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는 것이 학문의 본질임을 주장했다. 둘째, 우주본체의 다양한 존재양식 인 形上·形下, 道·器를 一元論的으로 인식했다. 즉, 우주의 본질은 一氣이므로 인식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의 실체라는 것이다. 이로써 天理와 人 欲 역시 인간심성의 두 가지 특징일 뿐 결코 어느 하나를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다. 나아가 人欲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셋째, 학문의 핵심 주제를 인간의 心性문제에서 객관적인 사회문제로 확대했 다. 즉, 개인도덕 함양이라는 전통적 학문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용학문의 필요 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는 宋明代의 제도개혁론이 이론에 치우친 것에 대한 반 성이었다. 따라서 17-18세기 新制度論은 청대 학술의 성격을 經世致用의 實學으로 규정하게 되는 주된 계기가 되었다."

진성수의 개괄은 이미 밝힌 것처럼 한국 학계의 일반적인 관점으로서 기철학에 대한 일반적 이해 지평에서 보자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서 이른바 기철학자로 분류되는 학자들의 사상을 이상의 주장과 정합성을 따지는 작업은 재삼 주의를 요한다.

14년도에 발표된 논문들 중에서 이용주의 <유종주劉宗周와 다산의 "심성心性"론비교>(다산학 제25호)와 신현승의 <유종주(劉宗周)의 신유학(新儒學) 수용 양상에 관한 고찰 -중국 명대 유학사의 한 단면->(동서철학연구 제71권)은 유종주 철학을 분석하고 있다. 진성수는 앞의 논문엣 기철학의 대표적인 인물로 유종주를 거론했다.

이용주의 본 논문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정약용의 철학을 논하는 과정에서 유종 주를 비교 항으로 다루고 있다. 본래 이 논문은 " 다산 '성즉기호性即嗜好'설의 사상사 적 위치를 함께 논함"이라는 부제에 밝히고 있듯이 다산 성기호설의 의의를 사상사적 입장에서 접근하여 유종주의 성론과 다산 성론의 유의미한 연관성을 기학이라는 관 점에서 조명한 글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다산의 심성론을 명말청초의 기일원론적 심성론의 트랜드와 비교하 면서 다산 시상의 시상시적 의미와 위치를 조감하려고 시도했다. 다산의 '성' 기호론管灰論의 철학적 의의는 다산이 형이상학形而上學을 거부하고 '성'을 '정'에 포섭되는 욕구의 한 양상이 라고 이해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 이렇게 다산은 '성' 해석의 새로운 ' 치원을 열었다 '성을 정으로 해석하는 '성' 논의 그리고 주자학의 형이상학을 극복하여 '성'이 초월적인 리理가 아니 라 오히려 신체적인 기氣 개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개념이라고 해석하는 새로운 시상적 시 도들이 명나라 중기이후 하나의 새로운 경향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런 새로운 관점은 특히 소위 기 일원론의 입장에 서 있는 사상가들이 제시한 것이다. 필자는 다산의 '성즉기호론 역사 이런 '기 일원론'의 흐름 속에 위치지울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용주가 생각하는 유종주의 반형이상적 성론은 무엇인가? 2장 '기 일원 론적 심성 이해'에서 비교적 소상히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종주의 '성'론은 '성을 심에 종속시키는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심통성정'은 하나의 물질적 존재에 불과한 심'이 초 월적 실체인 '성리理을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인간의 마음으로서의 영명함을 발휘한다는 이 론이다. 인간의 '마음心'에 대해서 외부적이고 초월적인 '성'에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하는 입 장인 것이다. 그러나 '성'이 '심의 성'이라고 말하는 유종주의 관점은 '성'이 초월적인 실체가 아 니라 인간 '마음' 그 자체라는 것이다." "유종주에게 있어서 '성'과 '리'는 '심'에서 독립된 형이상 학적 실체가 아니다. 성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인간의 마음의 욕구지향에 다름 아 니다. 이처럼 유종주에서 성은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지위를 박탈당한다 . 성을 형이상학적 실 체로 보지 않고 단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보는 소박한 관점은 선진先秦 사상의 상식이었다. 그 점에서 유종주는 주자학의 초월적 '성' 개념을 벗어나 선진시대의 소박한 의미 로 되돌아가려 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유종주는 주지학의 용어를 사용하여 주지학을 XD도 전환시키는 혁신적인 사고를 표현하고 있다. '심'을 '성'이나 '리'에 종속되는 부차적인 것으로 보 는 것이 아니라 '성'이나 '리'를 '심'에 종속시키는 방식으로 주자학의 '성리' 우위의 심성 패러다 임을 벗어나려고 시도한다는 말이다." "'성'과 '리'는 인간의 마음'심' 안에 자연스럽게 존재하 면서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 주는 인간의 동일성 그런 동일성으로서 인간의 자연스런 욕구다. 이런 유종주의 입장은 기 우위론의 자연스런 귀결이다." "유종주는 주자학의 이워론을 거부 하고 '성'과 '심'을 하나로 보는 일원론을 제시한다. 유종주의 입장을 우리는 '반형이상학적 심성 론antimetaphysical theory of mind'이라고 부를 수 있다. 반형이상학적 관점에서'성'은 형 이상학적 실체가 아니라 마음의 '영명성'신비로운 작용의 다른 이름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 득한다." "유종주의 기 우위론은 유학의 성선설 전통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주자학의 형이상 학적 성리론을 극복하려고 한다." "사실 '인의예지'가 곧 '성'이라고 말하는 유종주의 관점은 주 자학적 관점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유종주의 입장은 형이상학적인 理가 인간의 마 음心 물질 덩어리에 깃들어 그것이 도덕적 본성理性仁義禮智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주자학을 부정하는 반형이상학적 성선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유종주는 소위 '본연지성'천 명지성의 존재를 부정한다. '심'을 떠난 초월적인 '본연'의 '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다산이 '본연' 개념이 경전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본연지성' 개념을 거부하는 것과 비교해보라 흥미로운 유사성이다.)

이상의 인용문들은 이용주가 주장하는 유종주 심성론의 반형이상학 성격이 무엇인지 소상히 알려주고 있다. 아울러 이는 비단 이용주의 독특한 주장이 아니라 유종주의 기철학에 주목한 많은 학자들이 견지하는 입장으로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그런데 이 주장이 좀 더 광범위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물음에 성실한 답변을 해야 한다. 첫째는 반형이상학적(혹은 탈형이상학적)이라는 용어의 엄밀한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둘째는 성은 형이상학적 실체가 아니라고 할 때에 실체에 대한 엄밀한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셋째는 "성'은 형이상학적 실체가 아니라 마음의 '영명성'신비로운 작용의 다른 이름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다."와 "유종주의 주장은 언뜻보면 양명학의 '심즉리心即理'와 비슷하다. 주자학의 '성즉리性即理'는 '성(리)'이 감성 감각을 초월하는 형이상학적 실체라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종주는 주자학의 '성즉리' 명제에 반대한다."에서 제기한 양명학과의 상관성이다.

먼저 반형이상학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통상적인 의미는 경험과학으로 증명할 수없는 대상에 대한 탐구의 불가능을 선포함으로써 형이상적 대상에 대한 지적 무력화를 통하여 그 존재(신)의 절대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맥락을 깔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반형이상학이라는 말은 곧장 근대라는 단어를 쉽게 떠올리게 만든다. 만약이런 맥락이라고 한다면 유종주의 기철학은 과연 반형이상학적인가? 또한 이와 같은 해석은 다산이 성기호설을 제시한 그 의도를 과연 충실히 반영한 해석인가? 하고 고민해 봐야 한다. 만약 다산의 성기호설이 形骸化 되어 버린 性(理)의 복권을기도한 고심의 산물이었다는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형이상학인 그 리(성)을 회복하고자 한 것이지 '反' 또는 '脫'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주자학도이든 양명학도이든 명대에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진 이기일원적 입장에는 바로이와 같은 고려가 들어있었던 것은 아닌지? 재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로 실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송대의 리는 실체적 성격이 있다면 명대 이후로는 실체적 성격을 탈각했다고 평가한다. 서양 철학에서 실체란 그 자체로 존재하는 존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자는 천지산하가 없어지더라도 리는 그대로 있으며, 기가 없을 때에도 리는 이미 있다는 理先氣後의 입장에서 理氣二元을 주장한다. 주자의 리는 분명 질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않는 형상적 실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종주를 포함한 명대의 理氣 하지 작 주장은 기를 떠난 리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상적 실체를 부정했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체라는 말 대신에 주재라는 말을 써서 명대의 이기일물을 주장한 유학자들은 리의 주재성을 부정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해야 하는가?

사실 주자가 리의 실체성을 강조한 것은 리의 주재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듯이 명대의 유자들, 가령 나흠순, 왕양명, 유종주, 황종희 등이 리의 실체성을 부정한 것도 리의 주재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음을 이해한다면 결국 리선기후이든 리기일물이든 모두 리의 권위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실체를 거부했다는 주장이 깔고 위는 리의 권위에 대한 거부와는 그 층위가 엇갈린다는 점을 해명해야 한다.

셋째는 유종주가 성'을 형이상학적 실은 형이상학적 실체로 보지 않고 마음의 '영명성'신비로운 작용으로 보았다는 이 말을 "유종주의 주장은 언뜻 보면 양명학의 '심즉리心即理'와 비슷하다"는 말과 연결을 지어서 사고하면, 기학과 심학의 대립을 전제한 통상적인 기철학의 입장에서 그 이상의 논의를 전개하기 어려운 점에서 "언뜻 보면" "비슷하다"는 표현으로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유종주철학에서 심학(특히 양명심학)과 기학이 충돌하는 두 대립항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굳이 "언뜻 보면", "비슷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는 주자의 성즉리를 비판하고 심즉리를 제창한 양명 심학의 본령이 리의 내재화와 더불어주체성을 강조한 측면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리기일물을 주장하고 심의 주재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리의 주재성을 강화하는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명대 심학을 확립한 왕양명에 대한 연구 성과는 상당한데 그 중에서도 2편의 논문이 주목을 끈다. 바로 박길수의 <왕양명 철학에서 도덕 감정과 즐거움의 문제 : 왕양명 심체(心體) 사상에 대한 도덕 심리학적>, 양명학 제38집)과 서강휘의 <朱熹와 王陽明의 本領工夫論>(양명학 제37집)이다. 이 두 편은 공히 양명학의 본질적인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접근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서강휘의 논문은 철학자의 사상 또는 그 철학의 의미 맥락을 밝히는데 치중한 이른바 철학사적인 논문의 전형성을 보여주고 있다면 박길수의 논문은 현대철학 사조를 통한 새로운 재해석을 시도한 철학적 논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한국 동양철학계 의 두가지의 글쓰기 유형을 잘 보여준다.

먼저 서강휘의 논문부터 살펴보자. 논문의 제목은 주희와 양명의 공부론에 대한 해명임을 밝히고 있으며 논문의 구성 또한 전반부에 주자의 공부론을 논하고 후반부에 양명의 공부론을 논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본 논문이 의도하는 지점에 대해서 저자가 직접 밝힌 대목은 이렇다. "본 논문은 양명의 심체에 대한 규정과 공부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화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이다. 다시 말해 의념 상에서 이루어지는 위선거약 공부 이외에 본체를 깨닫는 별도의 공부가 요구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러한 문 제 의식은 주희가 지닌 본령공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주희의 사고는 단지 주희에게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양명 후학들에게도 존재하는 사유유형이다. 또 양명 자신의 언어 표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오해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양명에게서 주희의 이와 같은 사유 유형은 철저히 부정 된다는 점이다. 이런 그의 입장은 心即理라는 심성론 체계에서 비롯되며,

이로 말미암아 본체와 공부간의 긴장이 발생되지만 실천적 구조 안에서 이 둘은 원 래 통합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주자의 공부론을 서강휘는 이렇게 정리한다. "이처럼 주희는 중화신설을 통해 지경공부를 내세워 이발과 미발을 관통하는 본령공부를 상정했다. 이 공부를 통해 수양주체는 의식의 전구간에 걸쳐 공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래 심을 현상 층차에서 구현해 냄으로써 천리 의 발현과 확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래서 주희는 함양과 격물의 공부는 서로 병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지경함양공부는 격물을 위한 준비의 의미 도 지니며 격물 가운데 유지되는 태도이기도 하고, 격물의 인식 재료들을 체화 하는 공부이기도 하다. 그것은 일종의 경각일 수도 있고조존일 수도 있으며, 정제엄숙이기도 하고, 주일무적이며, 함양이기도 하다. 이러한 그의 생각에는 발동 층차에서의 공부는 마음의 원두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본령적인 위치를 차지 할 수 없다는데서 비롯된다. 의식 발동 이전,즉 인간 생명의 원두처에까지 미치는 공부가 있어야 의식이 발동된 뒤에도 흔들림없이 천리와 조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주자가 중화신설을 제창하면서 호상학의 찰식단예설은 이발시 공부에 치중하여 '平日涵養本領工夫'가 결여되어 있다고 했고, 양명이 주자가 미발 존양과 이발 성찰로 공부를 나눈 것에 대해서 비판한 것을 고려한다면 서강휘의 이상의 견해는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자가 말한 '평일함양'이라는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본다면 이상의 설명이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주자가 말한 평일함양은 분명 호상학의 찰식설이 이발시 공부에 치중한다고 비판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장 이발과 별개의 미발시 공부를 상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평일이란 미발과이발을 관통하는 일상의 공부를 의미한다. 그래야 애초에 주자가 연평이 '체인미발이전기상' 공부에 대해서 회의했던 그 내적 맥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어찌되었든 서강휘는 주자의 주경 공부론에 비하여 이상의 평가를 내리고서 양명의 공부론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서 2개의 단계를 설정하는데 하나는 덕홍에게 본체를 깨달으라고 한 사구교에 대한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육원정과의 변론이다. 특히 육원정 변론의 중요성은 미발시 공부에 대한 양명이 입장을 분명히 알 수 있기때문이다.

사구교와 관련하여서는 이렇게 말한다. "심체는 실연實然적으로는 至善이지만 그작용 방식은 '無善無惡'이다. 실제로 '至善'이 절대적인 '善'이 되려면 선이나 악이라고 하는 집착이 있어서는 안된다." "아무것에도 집착함이 없는 본체와 선과 악을 분명히 붙잡고 인식하는 공부는 서로 모순되 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를 부정하면서 일치하는 실천적인 변증과정에 있다. 공부는 자신의 有를 부정하여 본체의 無를 따라야 하고 본체의 無는 공부의 有를 통해 실천되어야 한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無善無惡을 추구하거나 위선거악 하는 사상마련思想磨練공부 이외에 보다 근본적인 공부를 설정하게 될 것이 다. 양명이 전덕홍에게 내린 훈시는 자칫하면 그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여기서 심체의 무선무악과 심체의 지선무악의 상통성을 지선한 심체의 무집착으로 해명하면서, 양명이 덕홍에게 용계가 강조한 본체를 배우라고 한 대목은 별도로 상정한 미발 공부를 옹호하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면서 육원정으로 논의를 발전시킨다. 육원정은 이른바 미발시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한 제자이기 때문에 이 대화 내용을 통해서 양명 공부론의 입장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덕홍에게 제시한 양명의 훈계나 '심체에는 어떤 생각도 머물러 막혀 있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무집착이라는 별도의 공부가 요구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만일 그렇게 이해한다면 육원정의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무집착'은 직접적인 공부가 아니라 사상마련 중 良知에 충실할 때 반관되는 마음의 본래형태적 작용 방식, 혹은 공부가 익숙해져 도달하게 되는 경계일 뿐이다." "양명은 천리를 현현하도록 하기 위해 선악을 떠나려는 것을 現在當下의 良知에 의존하지 않고 특정한 상태를 미리 설정한 將迎意必이며 自私自利라고 질책한다." "육원정의 질문은 사욕을 제거하는 爲善去惡의 구체적 공부 이외에 無執著이나 常惺惺과 같은 별도의 공부가 필요한 지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 것이다." "양명은 육원정과의 논변을 통해 치양지공부로써의 격물 이외에 천리 가 현현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여타의 공부, 즉 불사선불사악이라든가, 야기라든가 항상 깨어 있는 공부는 치양지 공부안에 포섭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상의 내용은 양명학의 치양지 공부의 의미를 보여준다. 바로 통장적으로 말하는 '양명학의 치양지는 사상마련에 있다'는 주장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양명학은 주자학의 즉물궁리를 부정하고서 심즉리를 제창하는데, 여기서 이치가 마음에 있다는 이 말은 내관, 본질직관 등의 공부론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상마련의 正物致知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입장을 결론에서 "양지를 따라 실천하는 것과 양지의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공부는 서로 다른 두 형태의 공부가 아니라 심즉리의 심성론적 이해로 인해 하나의 공부로 융합된다. 양지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 역시도 양지를 따라 실천하는 구체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선한 양지가 자재 하게 유행할 수 있는 것은 무집착 공부나, 본체를 깨닫는 본령 공부를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위선거악 공부의 착실성과 스스로를 속이지 않음에서 실현된다. 그러므로 의식상에서의 공부는 第二義라든가 고요한 가운데 양지를 體認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양명의 비판대로 自私自利라고 할 수 있다."라는 말에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이상의 주장은 하등 새로울 것은 없지만 또한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려운 지점이다. 바로 이 대목을 적절한 구성과 논리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양명학을 올바로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좋은 안내자가 되어 줄 것이다.

다음으로 박길수의 논문을 검토하자. 그는 양명철학의 의의를 2가지로 요약하여 밝힌다. "그의 매우 독창적인 사상은 기존의 송명 이학사와 비교해 볼 때 크게 두 가지 의의를 지닌다. 하나는 그가 기존의 정주학파가 심성론의 영역에서 각기 상이 한 함의를 지니는 것으로 제시하였던 것으로 성체性體와 심체心體 개념을 단일한 범주로 통합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송명 철학사에서 공안낙처孔顔樂處와 관련하여 역대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온 대립적인 경외敬畏와 쇄락灑落의 이원성과 대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다른 하나는 기존의 순리위락順理爲樂 사상을 보다 진전시켜 도덕성의 실현과 관련하여 도덕 감정과 도덕 심리를 통일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양명은 주체의 도덕적 동기와 행위가 더 이상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도덕적 의무나 외적 강제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마음의 본체를 구성하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인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촉발될 수 있는 토대를 새롭게 정초한다. 요약하면 양명의 새로운 본체론과 도덕 감정론은 기존에 양분되던 도덕 철학과 도덕 심리학의 범주들을 근본적으로 통일함으로써 확립되었고 또한 이것이 그가 송명 유학사에 기여한 가장 독창적인 부분이자 중요한 업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자신에 찬 박길수의 평가는 분명 양명학의 사상사적 의의를 제대로 짚어주고 있다. 바로 이 대목이 양명학(양명후학)의 민중성, 대중성을 이해하는데 통상 활용 하였던 사회사적, 경제사적, 정치사적 프리즘 외에 양명학의 사상사적 맥락 안에서 토론할 수 있는 토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본 논문의 맥락을 따 르자면 쇄락과 경외라는 이원성의 대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했다는 점이다. 이 를 현대적인 윤리학적(도덕철학적) 논의들과 연결하여 말하자면 도덕 철학(경외, 嚴 肅主義)과 도덕 심리학(쇄락, 悅樂主義)의 범주들을 통합했다는 것이다.

다시 그의 말을 들어보자. 첫째 쇄락과 경외의 관계에 대해서 "정호는 쇄락灑落을 경외敬畏를 위한 전제로 본데 반해 정이는 경외를 쇄락의 선결요건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후 주희朱熹는 대체로 정이의 견해를 계승하여 발전시킨다. 기존의 정주학이 도덕적 본체(본성)과 감정을 이원화하고 상대적으로 성리性理의 내용과 가치를 더 중시했던 것과 달리, 양명은 본성과 감정을 단일한 범주로 통일하는 동시에더 나아가 심 본체의 실현과 관련하여 감정의 요소와 기능을 더 중시한다. 그 결과로 양명의 사상에서 경외와 쇄락의 대립적인 요소와 특징은 해소되고, 양자의 관계에서도 쇄락이 오히려 경외의 근거와 바탕이 된다."

둘째 도덕 철학과 도덕 심리학에 대해서 "양명의 이러한 새로운 관점과 견해는 기존의 도덕 철학의 편향된 연구 방향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그가 도덕성과 감정 그리고 심리의 범주를 상호 결합한 것은 도덕 철학과 도덕 심리학의 전제와 개념들을 통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의의는 인간의 도덕성과 동기 그리고 실천을 보다 전체적으로 고찰하고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도덕 심리학적 시각과 연구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킨 데 있다. ……양명은 즐거움과 호오好惡를 각기 새로운 심체心體와 도덕 본체의 본질로 간주함으로써 이러한 도덕 철학의 주요 문제점을 넘어서는 동시에 윤리적 주체의 자발성과 능동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양명의 새로운 심의 본체론과 도덕감정론이 내포한 가장 큰 철학적 의의이다."

실상 본 논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맹자의 "反身而誠樂莫大焉"과 "義理之悅我心"

은 본체와 공부 양 측면에서 심체의 悅樂을 이미 분명히 밝히고 있다. 양명이 입장은 이 큰 틀을 전혀 벗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이 양명학에 새삼스러운 것은 송대 이학의 엄숙주의적 경향에 대비되는 명대 이학의 특징으로 열락주의를 상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양명학(양명후학)의 사상사적 변화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해답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문제는 본 논문의 주제가 아니므로 다르고 있지 않지만 기존의 연구 성과 중에 이 점을 밝힌 논문이 있다는 점은 상기할필요가 있을 것이다.

간단하게 3편의 논문을 정리해 보았다. 각 논문들은 논한 주제의식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5. 평가와 전망

총 18편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들은 이미 밝힌 것처럼 왕양명, 유종주, 왕부지, 대진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를 다시 편수별로 구분하면 왕양명 10편, 양명후학인 허경암과 주해문에 대한 논문이 1편(이상훈, <허경암(許敬菴)과 주해문(周海門)의 구체구해론변(九諦九解論辯)고찰>, 유학연구 제30집), 유종주 2편, 왕부지 3편, 대진 1편, 그리고 진성수의 <17-18세기 중국 유교지식인의 기철학(氣哲學) 연구>, 유학연구 제30집)에서 유종주, 황종희, 왕부지, 대진의 기철학을 논하고 있다. 명청대를 기준으로 선별한 18편의 논문은 많은 편수도 아니거니와 그나마도 명대양명학(심학)과 청대 기철학을 대표하는 몇몇 인물들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있다. 이는 현재 한국 동양철학계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군이 여전히 다양화 되지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하여 연구의 영역이 넓지 않다는 것을 알 수도 있거니와 연구자 층이 많지 않다는 것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진성수의 논문을 뺀 17편 중에서 양명학자(왕양명, 허경함, 주해문, 유종주, 황종희)에 대한 연구가 13편으로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종주와 황종희를 제외하더라도 11편(65%)으로 양명학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중국 대륙 학계에서 양명학 연구가 왕성한 것과 일정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총 18편의 논문들 중에는 탁월한 문제의식이 돋보이기는 하지만 그 문제의식을 충분히 수궁하게 만드는 객관적 논지 전개가 아쉬운 논문도 있고, 몇몇 논문은 분 명한 논지 전개와 유려한 필치가 돋보이기는 하지만 정작 기존의 연구 태도를 벗어 나지 못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